강의계획서[책뜨락-명화로 토론하다]

강 좌 명	**책뜨락 - 명화로 토론하다**	강 사 명	박희영
대 상	초등 4~6학년	인 원	15명
기 간	2026. 3. 21.~5. 30. (토, 10:00~12:00)	교육장소	2층 문화강좌실1
강의목표	- 주요 화가의 삶과 대표 작품을 맥락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. - 화가가 처한 상황과 선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다. - 작품을 보고 느낌을 넘어 이유와 근거를 들어 표현할 수 있다. -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의 기본 태도를 익힌다.		

회차	주제	내용	도서
1회 (3. 21.)	피카소	- 오리엔테이션 -사업내용 및 수업 진행 방향 안내 - 전쟁과 인간의 삶 - 오직 세상을 위한 그림 - 1937년 4월26일 게르니카 참혹한 대학살사건 - [한국에서의 학살] - 가치 선택 토론(예술의 책임 vs 개인의 자유)	평화의 상징 피카소의 게르니카
2회 (3. 28.)	빈센트 반 고흐	- 빈센트 반고흐의 명작 - 하고 싶은 일과 인정받는 일 - 고흐의 삶과 죽음 / 동생 태오와 고갱 - 공감 토론(삶의 선택 이해하기) - 힘든 삶이 위대한 예술을 만들 수 있을까?	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해바라기
3회 (4. 4.)	레오나르도 다빈치	- 21세기에 태어났다면 ADHD - 르네상스형 인간이란? - 전쟁을 싫어했지만, 천재성을 보여주는 용도로 만들었던 무기들 - 만약에 토론(시대 바꾸기) - 두 마음 토론	세상이 반한 미소 모나리자
4회 (4. 11.)	미켈란 젤로	-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도 계속해야 할까? - 혼자 일하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가 중 누가 더 나을까? - 예술가는 자신의 건강보다 작품을 우선해야 할까? -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는 장점일까 단점일까? - 신앙은 예술을 자유롭게 할까, 제한할까?	신이 내린 예술가 미켈란젤로
5회 (4. 18.)	구스타프 클림트	- 빈 대학교 대강당의 천장 패널화 '철학', '의학', '법학'을 상징하는 그림들 - [상상의 집] - 나치에 의해 퇴폐 미술이라 낙인찍혀 압류	구스타프 클림트 금빛너머

6회 (4. 25.)	달리	- 다름의 강점 - 꿈꾸는 몽상가/ 다다이즘 - [달리의 녹아내리는 시계] - 살아생전 광기어린 기행들 - 꿈과 상상은 현실만큼 중요할까? - 달리처럼 튀는 행동은 예술가에게 필요할까?	꿈꾸는 몽상가 달리의 녹아내리는 시계
7회 (5. 9.)	세잔	- 세상의 다양한 사과들 - 세상을 놀라게 한 세잔의 사과] -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가 쓴 에세이 : 세잔의 의심 - 이해받지 못해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야 할까? - 세잔의 그림은 왜 당시 사람들에게 어려웠을까?	세상을 놀라게 한 세잔의 사과
8회 (5. 16.)	벨라스케스	- 그림 속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? (화가·왕·관객) - 왕을 그린 화가는 권력 편이었을까? -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가장 뛰어난 기술일까? - 보이지 않는 사람(하인·난쟁이)을 그린 것은 왜 중요할까? - 그림은 진실을 보여줄까, 선택을 보여줄까?	유령공주의 숨바꼭질
9회 (5. 23.)	마르셀 뒤샹	- 평범한 변기는 어떻게 예술 작품이 되었을까? - 예술가(Artist)는 꼭 장인(Artisan)처럼 손수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가? 아니면 그냥 자기 발상(idea)에 맞는 사물을 선택하기만 해도 되는가? - 예술작품을 예술로 인증해주는 것은 무엇인가? 예술가인가? 관객인가? 미술관같은 예술기관인가? - 기준 토론(무엇이 예술인가)	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변기
10회 (5. 30.)	백남준	- 도전과 노력 - 비디오 아트의 선구 - [백남준의 TV부처] - 텔레비전과 컴퓨터도 예술 도구가 될 수 있을까? - 예술은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야 할까? - 미래의 예술가는 어떤 모습일까?	비디오아트의 선구, 백남준의 TV부처